부사파생접미사 ‘-이’, ‘-히’ 관련 몇 가지 문제

-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제51항을 중심으로 -

박준범*

〈차 례〉

1. 머리말
2. 어기는 어근인가, 어간인가?
3. X의 형태 자질
4.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제51항의 수정 제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부사파생접미사의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부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하는 어기가 어근인지, 어간인지를 밝히고, 혼란스러운 부사파생접미사 표기의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Xㅎ-’의 X의 형태 자질에 따라 표기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생산적인 파생법에서는 접사가 결합하는 어기가 어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의 몇몇 용례는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4장에서 이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X의 형태 자질을 통시적인 관점에 따라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누고, 고유어는 다시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유성음으로 끝나는 경우로 나누어 이에 따라 '-이', '-히'의 표기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접미사 '-이', 접미사 '-히', 부사파생접미사, 한글 맞춤법, 접미사 '-이'와 '-히'의 표기

1. 머리말

본고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1]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에서의 표기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일부 수정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한글 맞춤법에서 접미사 '-이', '-히'와 관련한 규정은 제19항, 제20항, 제23항, 제25항, 제51항인데[2], (1)은 이를 정리하여 보인 것이다.

---

1)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에 대한 설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부터였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마춤법 통일안>(고친판, 1937)에서는 접미사 '-이', '-히'의 표기에 있어서 구별의 기준을 '-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두었다. 그러던 것이 <맞춤법안>(국어 심의회안, 1979)부터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맞춤법안>에서는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이'로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으나 '이'나 '히'로 혼동되는 것은 '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직은 과도기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맞춤법 개정안>(학술원안, 1984)부터 '이'나 '히'로 혼동되는 경우 '히'로 적는 것으로 정하여 '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조항에서 빠지게 되었다.

2) 이 중에서, 한글 맞춤법 제19항 1과 제20항 2, 제2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접미사 '-이'는 명사파생접미사이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1) 접미사 '-이', '-히'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몫몫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1)에서 제19항과 제25-1항은 어기가 어간인 경우[3]에 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20항과 제25-2항은 어기가 어근인 경우에 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51항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접미사 ‘-이’, ‘-히’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이고 있다.[4]

3) 제25-1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말은 ‘X하-’형의 X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제25-1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을 X로 처리하면 제25-2항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본고에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말을 ‘X하-’에서 ‘하-’가 탈락하고 남은 X로 전제함을 앞서 밝힌다. 왜냐하면 부사파생접미사 ‘-히’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히’의 ‘ㅎ’을 ‘ᄒᆞ’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명사나 ‘-하다’가 붙지 못하는 부사와 결합할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고 할 수 있으나 ‘-하다’가 붙는 말인 경우는 비록 X가 부사나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모두 가능성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미사가 어간과 결합하므로 어간의 일부인 어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통시적으로 ‘Xᄒᆞ-’가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어떤 경우는 ‘ㆍ’가 탈락하여 접미사 ‘-히’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ㆍ’가 탈락한 후 ‘ㅎ’마저도 탈락하여 다시 ‘-이’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접미사 ‘-이’, ‘-히’의 혼동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4)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제19항, 제20항, 제23항, 제25항과 제51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9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인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나 '밝히, 익히, 작히' 등은 단순 어간[5]의 형태다. 또한 제25-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인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등은 'X호-'에 접미사 '-이'나 '-히'가 붙은 것[6]이므로 복합 어간의 형태라고 하겠다. 접미사 '-이'나 '-히'가 결합하는 어기의 경우, 단순 어간인 경우에는 주로 '-이'와 결합한다. '-히'가 결합한 '밝히, 익히, 작히'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용례[7]일 뿐이다. 어기의 형태가 단순 어간일 때,

---

'어기(X) + 부사파생접미사 → Y'로 나타낸다면, 제51항은 접미사를 '-이'로 적을 것인지, '-히'로 적을 것인지를 밝힌 규정이고, 제19항, 제20항, 제23항, 제25항은 어기(X)의 형태 자질 — 어간, 명사, '-하다'가 붙는 어근, 부사 등 — 에 따라 Y를 표기할 때,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지,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를 밝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단순 어간이라는 말은 구본관(2004:109)에서 정리해 놓은 이현희(1985:367-379)의 논의에서 재인용하여 빌려온 것이다. 이현희는 'ᄒᆞ-'가 다른 요소와 결합할 대의 교체 양상을 정리하면서 'ᄒᆞ-'를 단순 어간과 복합 어간(조동사적이거나 접미사적으로 쓰일 때)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때 단순 어간이라는 뜻은 'ᄒᆞ-'에 다른 것이 붙지 않은 형태를 말하는데, 단일한 용언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이를 빌려와 단순 어간은 '같-, 굳-, 길-, 많-, 좋-, 실없-, 짓궂-'처럼 단일하거나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자 한다. 한편 유필재(2007:5)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非 Xᄒᆞ-'로 제시하였다.

6)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01_0403.jsp)에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설보기>를 보면,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急)하다, 꾸준하다, 도저(到底)하다'처럼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이 파생되는 어근 형태소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7)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히'가 붙는 경우는 그 기능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점은 한글 맞춤법 제19항의 <해설보기>에서도 ''밝히'는 그 뒤에 '증명하다(되다)' 같은 말이 연결되긴 하지만, '만들다, 비치다, 빛나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제약성을 지니므로, 부사적 기능이 약한 단어이며, '작히(작히나)'는 그 어근(어간)의 본뜻과 상당히 멀어진 단어다. 그러나 용언 어간 '밝-, 작-'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므로, 여기서 다룬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접미사 '-히'의 생성과 관련될 것이다. 접미사 '-히'가 'ᄒᆞ'에서 온 것이라면, 단순

접미사 ‘-히’가 붙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밝히, 익히, 작히’ 정도에 불과하지만,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8)]

그러나 접미사 ‘-이’나 ‘-히’가 복합 어간과 결합하는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기가 ‘X호-’인 경우 X가 ‘ㅅ’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접미사 ‘-이’가, 그 외의 경우에는 ‘-히’가 붙는 것으로 설명[9)]하고 있다.

(2) 가. 모자를 (깊숙이/깊숙히) 내려 쓰다.
나. 시골의 겨울밤은 (그윽이/그윽히) 깊어만 갔다.

어간의 경우 ‘-히’보다는 ‘-이’와 결합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8)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만 보더라도, 단순 어간에 결합한 접미사 ‘-이’와 ‘-히’는 용례의 수(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단순 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경우의 용례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기꺼이
날카로이	너그러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스러이	외로이	즐거이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좋이	짓궂이
헛되이	곧이	덧없이	옳이	

9)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대한 <해설보기>에서는 이를 일종의 규칙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이’로만 나는 것
ㄱ)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
ㄴ) ‘ㅂ’ 불규칙 형용사의 어간의 경우
ㄷ) 규칙적인 활용을 하는 형용사의 어간인 경우
ㄹ) 같은 말이 겹쳐진 첩어로서, 뒤에 ‘-하다’가 오지 못하는 경우
2. ‘이, 히’로 나는 것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앞에 올 경우(끝소리가 ‘ㅅ’인 어근은 제외함)
이와 유사하게 이희승·안병희(2006:140-141)에서도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와 관련한 규칙성을 문법적으로 구별 가능하도록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한 바 있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성에 따르면 (2가, 나)의 경우에 ‘＊깊숙히, ＊그윽히’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깊숙이, 그윽이’로 제시하고 있다.[10] 이러한 문제는 공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도 ‘X ᄒᆞ-’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X가 ‘ㄱ’으로 끝날 때는 ‘-이’와 ‘-히’의 표기가 혼란스러웠음을 보이고 있다.[11]

(3) 가.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나.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3가)는 한글 맞춤법 제25-2항에서 제시한 용례이고, (3나)는 제25-1항에서 제시한 용례이며, (3다)는 제25항 [붙임]의 용례다. (3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는 부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

10) 한글 맞춤법의 제51항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성에 관한 적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의 제51항 <해설보기>에서 규칙성을 제시한 이유는 발음에 혼란이 있는 경우에 이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글 맞춤법의 제51항 <해설보기>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 부사화 접미사 ‘이/히’의 구별 문제는, 표준어 사정(‘표준어 모음’ 발간)에서 더 검토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 규칙성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단서를 덧붙였다. 본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규정의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성에 관한 일차적 문제제기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한글 맞춤법 제51항의 수정 방안에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11) 중세국어의 접미사 ‘-이’, ‘-히’의 혼란에 대해서는 成煥甲(1974), 허웅(1975), 이숭녕(1981), 김종록(1990), 박석문(1991), 김성규(1994), 구본관(2004), 유필재(2007) 등이 있다. 이보다 거슬러 올라간 고대국어에서의 혼란을 다룬 논의는 최남희(1996:145-149)가 있고, 개화기 시기의 혼란을 다룬 연구로는 정민영(1997)이 있다.

다. 하지만 용례 제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긋, 오뚝, 해죽’처럼 X가 부사이면서 어간 ‘X하-’의 일부인 어근인 경우가 접미사 ‘-히’와 결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한글 맞춤법의 입장에서처럼 ‘생긋, 오뚝, 해죽’을 부사로 처리하면, 제51항에 제시된 ‘꼼꼼히, 가만히’ 등도 ‘＊꼼꼼이, ＊가만이’로 바꾸어야 한다.[12] 하지만 이를 부사로 처리하지 않고 ‘X하-’의 일부인 어근인 경우로 처리하더라도 ‘생긋, 오뚝, 해죽’을 ‘생긋이, 오뚝이, 해죽이’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용례들은 제25-1항의 경우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51항 <해설보기>의 규칙성도 수정해야 한다. 만약 ‘생긋, 오뚝, 해죽’을 어간 ‘X하-’의 일부인 어근 X로 본다면 (3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럴 경우에 ‘생긋, 오뚝, 해죽’이 접미사 ‘-이’와만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접미사 ‘-이’, ‘-히’ 중에서 무엇과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따라야 한다. (1)에서처럼 한글 맞춤법 제51항에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접미사 ‘-이’나 ‘-히’가 붙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음은 화자의 주관성이 강하므로 이것만으로 ‘-이’, ‘-히’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13] 따라서 한글 맞춤법

12) 이 외에도 ‘빼곡히, 빼꼭히’ 등을 더 찾았는데, 이 경우에도 ‘빼곡, 빼꼭’이 부사와 ‘X하-’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모두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부사로 처리한다면 ‘＊빼곡이, ＊빼꼭이’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해설이 없어 문제다.

13) 한글 맞춤법 제51항 <해설보기>에서는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는 규정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이란, 실상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예시된 단어 이외의 경우는 자칫 기록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음운 형태는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칙성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단어

제51항 해설에서 제시한 표기의 규칙성(각주9)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생긋, 오뚝, 해죽’은 ‘생긋이, *오뚝히, *해죽히’로 표기[14]해야 한다. 따라서 제51항 <해설보기>의 규칙성도 수정의 대상이 된다.

(3다)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3다)에 따르면 (3가)에서 ‘-하다’가 붙지 못하는 ‘곰곰, 더욱, 일찍’은 ‘곰고미, 더우기, 일찌기’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제25-1,2항의 세부조항을 적용할 때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한 순서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는 ‘X하-’형의 어기를 어근으로 설정할 지, 어간으로 설정할 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둘째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X하-’와 결합할 때, 어떤 접미사가 선택될 것인지에 관해, 즉, X의 규칙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셋째는 X의 규칙성의 형태 자질에 적용 순서가 있는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접미사 ‘-이’나 ‘-히’가 결합하는 X의 형태 자질과 관련한 규칙성에 일정한 순서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오뚝이, 해죽이’의 표기에 대해 한글 맞춤법 제25항 <해설보기>에서는 ‘… 부사화 접미사 ‘-이, -히’의 구별은 제51항에서 다루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뚝, 해죽’이 접미사 ‘-이’와 결합한 것은 역시 어기를 부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뚝, 해죽’을 부사로만 간주하는 이상에는 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2. 어기는 어근인가, 어간인가?

한글 맞춤법에서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는 어기는 어간(제19-3, 4항, 제25-1항)과 어근(제20-1항, 제25-2항)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파생법은 어간에 접사가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19-3, 4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 어간의 형태나 제25-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 어간의 형태가 보다 전형적인 파생 방법이다. 그렇다면 제25-2항에서 제시하는 용례인 '생긋이, 오뚝이, 해죽이'도 'X하-'의 형태로 분석하여 어간에 접미사 '-이'가 파생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전형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X를 '하'가 탈락한 어간의 일부로 분석하지 않고 어근인 부사로 분석한 것은 X가 접미사 '-히'와 결합하는 경우에 부사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15]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현행 한글 맞춤법으로는 '꼼꼼히, 가만히, 빼곡히, 빼꼭히' 등은 왜 '-히'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Xᄒ-'형의 X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X의 형태 자질에 따른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선택 문제는 통시적인 관점 - 특히, 중세국어 - 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세국어의 연구에서 부사파생접미사 '-히'는 'Xᄒ-'에 접미사 '-이'가 결합할 때, 'ㆍ'가 탈락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6] 이러한 입장을 수용한다면 부사파생접미사 대표형으로

---

15)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X하-'형의 경우에 X가 한자어인 경우와 유성음으로 끝나는 고유어인 경우는 주로 '-히'와 결합하고, X가 무성음으로 끝나는 고유어인 경우에 '-이'와 결합한다. 이때 접미사 '-히'와 결합하는 'X하-'의 X가 한자어인 경우나 유성음으로 끝나는 고유어인 경우에 이것이 부사나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 경우는 앞서 제시한 '꼼꼼, 가만' 정도였다.

16)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Xᄒ-'형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

‘-이’를 삼을 수 있다.[17] 그러나 15세기에 이미 ‘ᄀᆞᆮ히’와 같은 경우는 ‘ᄀᆞᆮ기’의 형태와 공존[18]했다. 이에 대해 구본관(2004:114-122)은 어간 ‘ᄀᆞᆮᄒᆞ-’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고 ‘ᄒᆞ’가 떨어져 나간 것[19]으로 보았다.[20] 그는 이러한 설명이 경향을 보여주는 단순

우는 ‘ㆍ’가 먼저 탈락하고 난 뒤, 다시 ‘ㅎ’이 탈락한 것으로 보게 된다(구본관 2004:106).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ᄒᆞ’가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구본관(2004:114-122)에서는 이현희(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중세국어 ‘Xᄒᆞ-’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X의 끝소리와 접미사의 첫소리에 따라 ‘ᄒᆞ’가 탈락(∅)하거나 ‘ㆍ, ㅎ, ᄒᆡ(y)’ 등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7) 이러한 입장을 취한 연구자로는 허웅(1975), 김성규(1994), 구본관(2004), 유필재(2007)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숭녕(1981:123-12 4), 박석문(1991: 71)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이’와 ‘-히’를 부사파생접미사로 각각 설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접미사 ‘-이’, ‘-히’를 각각 부사파생접미사로 설정할 경우 기능이 동일한 두 개의 형태소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음운론적 환경이나 형태론적 환경이 분명해야 하는데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경우는 이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접미사 ‘-이’와 ‘-히’를 각각의 부사파생접미사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8) 이에 대해 허웅(1975:426)은 이를 어근 ‘ᄀᆞᆮ’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보았고, 김성규(1994:79)는 여기에 성조의 차이를 언급하며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평성(L)으로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허웅(1975: 426)은 ‘Xᄒᆞ-’형 형용사가 부사파생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어근에 ‘-이’가 붙는 방법과 어간에 ‘-이’가 붙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근에 ‘-이’가 붙는 것으로 보았다. 김성규(1994:79)는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어근에 결합할 때는 평성(L)으로 실현되고, 어간에 결합할 때는 거성(H)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한편, 유필재(2007:3-30)는 후기중세국어에서 부사파생접미사 ‘-이’의 문제를 전의적 성조(ɑ)로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 ‘-이’의 성조는, 거성인 모음어미와 유사한 교체양상을 보이므로 거성이지만, ‘Xᄒᆞ-’형의 합성어를 어기로 하는 경우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성조가 평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어기는 ‘ᄒᆞ’가 탈락한 형태가 아니라 어근이며, 이때 결합하는 ‘-이’의 성조는 전의적 성조라는 것이다.

19) 구본관(2004:114-122)에서는 ‘ᄀᆞᆮ기’를 설명할 때,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한 기술에 불과하다고는 했지만, ‘X흐-+-이’에서 ‘X’의 끝소리가 무성음일 경우에는 ‘흐’ 전체가 탈락[21]하는 경향이 강하고, ‘X’의 끝소리가 유성음일 경우에는 ‘·’만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X’의 끝소리가 유성음일 경우에도 ‘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의 ‘ㅎ’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22]하였다. 이러한 ‘흐’ 탈락은 수의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는 어떠한 환경에서 ‘흐’가 탈락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먼저 ‘흐-’를 단순어간과 복합어간으로 나누었다. 우선 ‘흐-’ 단순어간의 경우는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자음으로 시작되면 ‘흐’, 매개모음이 오면 ‘ㅎ’, 모음 ‘오’가 오면 ‘ᄒᆡ(y)~ㅎ’, 모음 ‘아’가 오면 ‘ᄒᆡ(y)’가 온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흐-’ 복합어간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다. 어근의 끝소리가 유성음이고,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ㅈ’이면 ‘흐~ㅎ’, 어근의 끝소리가 무성음이고,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ㅈ, -ᄂᆞ-’이면 ‘흐~∅’가 온다.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매개모음이거나 모음 ‘오’나 ‘아’인 경우는 ‘흐-’ 단순어간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특히 ‘흐-’ 복합어간의 경우는 현대국어의 ‘하-’ 탈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 유필재(2007: 16-20)는 구본관의 ‘흐’ 탈락설에 대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성조의 문제였다. 후기중세국어에서 ‘흐’나 ‘ᄋᆞ’가 탈락할 때 성조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데, 접미사 ‘-이’가 결합할 때는 성조의 변동이 생기므로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는 ‘흐’ 탈락설이 ‘ᄀᆞᄌᆞ기LLL’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모든 예들을 ‘X흐-’ 어간으로 전제하였는데, 이러한 부류의 예들이 모두 ‘흐-’ 합성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셋째는 ‘흐’ 탈락에서의 ‘ᄋᆞ’ 탈락은 ‘흐’ 탈락과 상관없이 ‘-이’가 보이는 일반적인 교체의 한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필재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었다는 허웅(1975), 김성규(1994)의 논의를 이어받아 이를 ‘어근 어기설’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구본관(2004)에서 ‘X흐-’에 접미사 ‘-이’가 붙어 ‘흐’가 탈락하는 것은 ‘‘흐’탈락설‘이라고 하였다.

21) 이러한 논의는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조항을 뒷받침할 수 있다. ‘거북지, 생각건대, 넉넉지, 익숙지, 갑갑지, 섭섭지, 깨끗지, 못지’ 등 ‘하’가 줄어든 형태에서 X의 끝소리는 모두 ‘ㄱ, ㅂ, ㅅ’으로 무성음(안울림소리)이다.

22) 현대국어에서도 발음할 때 ‘ㅎ’이 모음 사이에서 탈락한다. 표준 발음법 제12항을 보면,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ㅎ’이 탈락한다. 그리고 ‘ㅎ’ 홑받침으로 된 어간 뒤에 ‘ㄴ’이 오는

보이는데, 이러한 수의적 현상이 접미사 ‘-이’, ‘-히’에 대한 표기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23]

중세국어에서 X의 형태 자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박석문(1991:74)에 따르면 X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접미사 ‘-히’가, 고유어 뒤에는 ‘-이’가 결합[24]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본관은 여기에서 고유어의 자질을 다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즉, 고유어가 무성음으로 끝나면 접미사 ‘-이’와, 유성음으로 끝나면 접미사 ‘-히’와 결합한다[25]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접미사 ‘-이’, ‘-히’의 분화는 ‘-하다’와의 결합 여부만으로는 설명이 힘들다. 이러한 ‘-이’, ‘-히’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 구본관(2004:130)은, X가 한자어라면, 당시 화자들은 신조어 내지

경우에는 ‘ㅎ’이 탈락하지 않지만, 겹받침(ㄶ, ㅀ)으로 된 어간 뒤에 오는 경우에는 ‘ㅎ’이 탈락한다. 이로 보아 ‘ㅎ’ 탈락이 필수적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유성음 사이에 ‘ㅎ’ 탈락은 유필재(2007: 23-24)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23) 이러한 혼란에 대해 김희숙(1980:9-20)은, <맞춤법 개정안>(1984) 이전의 규정과 입장을 같이 하여,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혼동될 때에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붙을 수 있으면 ‘히’로, 붙을 수 없으면 ‘이’로 적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희숙은 접미사 ‘-이’와 ‘-히’의 형태를 음운규칙 적용순서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이’와 ‘-히’의 혼동에 대한 한계를 풀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4) 박석문(1991:74)에서는 어간의 형태 자질에 따라 부사파생접미사가 선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태 자질에 따른 단어형성제약을 형태론적 제약이라고 하였는데, Aronoff(1976:51-52)와 Scalise(1984:64 -68)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Aronoff가 언급한 추상적 자질 [±Latinate]은 국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국어에서는 부사파생접미사가 고유어와 결합하는 경우와 한자어에 결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25) 구본관(2004:115-119)에서는 중세국어에서의 접미사 ‘-이’, ‘-히’ 표기에 관한 일종의 규칙성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이는 현재 한글 맞춤법에서의 전반적인 경향과도 일치한다. X가 고유어인 경우, 한글 맞춤법에서도 끝소리가 ‘ㅅ’인 경우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고, 끝소리가 ‘ㄴ, ㄹ, ㅁ, ㅇ, 모음’인 경우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다.

단발어가 많은 한자어를 별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히'를 하나의 접미사로 분리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클[26]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17세기 이후 접미사 '-히'가 생산성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박석문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접미사 '-이', '-히'가 공존하는 경우는 X가 몇몇의 고유어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X가 한자어인 경우에 결합하는 접미사 '-히'가 생산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고유어에까지 확대된 것[27]이라고 볼 수 있다.

(4) 가. 극히 속히 솔직히 엄격히
정확히 족히 익히 특히
나. 딱히

(4)는 한글 맞춤법에서 용례로 제시한 X의 끝소리가 무성음인 'Xㅎ-'에 접미사 '-히'가 붙어 이루어진 말들이다. (4가)는 X가 한자어인 경우이고, (4나)는 고유어인 경우이다. 따라서 (4나)는 '딱이'로 표기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딱히'로 표기하므로 비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4나)는 접미사 '-히'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접미사 '-히'의 생산성 증가가 화자의 한자어에 대한 인식

---

26) 구본관(2004:130)은 이를 각주로 처리하여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몇몇 있다. '밝히'의 경우, 중세국어에는 '밝-+-이'였던 것이 17세기부터는 '밝-+-히'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도라가 네 님군ᄃᆞ려 니ᄅᆞ라 ᄒᆞ여 <u>붉히</u> 닐러 보내여시니 <산성61>

이후 '밝-+-히'의 분포는 매우 넓어졌고, 오히려 '밝-+-이'의 분포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한글 맞춤법에는 '밝히'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접미사 '-히'가 생산성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7) 이러한 사실을 한글 맞춤법에 비추어 보면, 고유어이면서 그 끝소리가 'ㄱ, ㅂ'인 X가 접미사 '-히'와 결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결국 어기가 어근인 경우보다는 어간인 경우가 더 전형적인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25-2항의 용례 '생긋, 오뚝, 해죽'은 'Xㅎ-'에서 'ㅎ'가 탈락한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더 전형적인 분석이라 하겠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용례로 보인 '열심히'도 문제가 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열심히'의 경우 '열심하-'에 '-히'가 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열심하다'는 표제어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명사 '열심(熱心)'이 표제어로 등장하므로 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열심히'는 명사 어근에 부사파생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가 된다. 이는 '-히'의 생산성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28]. 하지만 접미사 '-히'는 '-하다'가 붙지 못하는 명사 어근과 결합하는 예가 '열심히'를 제외하고는 없다. 따라서 이를 '열심이[29]'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X의 형태 자질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Xㅎ-'의 X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형태 자질을 논한 바 있다. X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만약가 고유어라면 끝소리가 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접미사 '-이', '-히'가 구별된다고 하였다.

앞서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글 맞춤법 제25-2항의 '생긋이, 오뚝이, 해죽이'는 제51항 <해설보기>에서 제시한 표기의 규칙성

28) 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열심히'는 '열심하다'의 흔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9) '열심히'를 '열심이'로 수정하자는 견해는 김형배(2004:138)에도 제기된 바 있다.

에 따른다면 ‘생긋이, *오뚝히, *해죽히’로 써야 한다. 하지만 ‘생긋, 오뚝, 해죽’이, 2장에서 논의한 대로, X가 고유어이면서 무성음임을 고려한다면 ‘생긋이, 오뚝이, 해죽이’로 쓸 수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덧붙이고 있는 표기의 규칙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구본관(2004:115-119)은 중세국어에서도 X가 고유어일 때, 끝소리가 ‘ㅂ’인 경우에는 결합하는 접미사가 ‘-이’인 경우[30]는 나타나지만 ‘-히’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끝소리가 ‘ㅅ’인 경우에도 접미사 ‘-이’의 용례는 나타났으나, ‘-히’는 나타나지 않아 끝소리가 무성음일 때, 접미사 ‘-이’와 결합함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끝소리가 ‘ㄱ’인 경우 접미사 ‘-이’, ‘-히’가 혼란스럽게 나타났다.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고유어가 나타났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히’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섞여 나타났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X가 고유어이고, 끝소리가 ‘ㄱ’인 경우에 접미사가 ‘-히’와 결합하는 (5)와 같은 경우만 문제가 된다.

(5) ᄀᆞ득히　　번득히　　쉭쉭히
　　아득히　　아득아득히　　어득히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도 X가 ‘ㄱ’을 끝소리로 가진 경우[31]에 접미사 ‘-히’와 결합한 경우가 문제의 핵심[32]

30) 구본관(2004:116)이 제시한 용례는 ‘답다비(월인석보 13:18)’ 하나가 있었다. 이는 현재는 ‘답답히’로 나타난다. 이는 ‘*답답이’로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31) 이에 대해서는 김희진(1995), 송창선(2008)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논의에서는 X가 ‘ㄱ’을 끝소리로 가진 경우들 자체를 문제 삼았을 뿐이지, 접미사 ‘-히’와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송창선의

이다. X가 고유어이고, 끝소리가 'ㄱ'인 경우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는 현대국어에도 그 용례가 적지 않다.

(6) 고유어이면서 'ㄱ' 말음인 X가 접미사 '-히'와 결합한 경우[33]

가. 'X숙숙히/속속히'형

가무숙숙히	거무숙숙히	까무숙숙히	꺼무숙숙히
발그속속히	벌그숙숙히	볼그속속히	불그숙숙히

나. 'X죽죽히/족족히'형

가무족족히	거무죽죽히	까무족족히	꺼무죽죽히
발그족족히	벌그죽죽히	볼그족족히	불그죽죽히
빨그족족히	뻘그죽죽히	뽈그족족히	뿔그죽죽히
노르족족히	누르죽죽히	시푸르죽죽히	

다. 'X아득히/어득히'형

가마득히	가마아득히	까마득히	까마아득히
아득히	어득히		

경우에도 X가 고유어이고, 'ㄱ'을 끝소리로 가진 경우에 이를 대부분 '-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은 했으나, 그 이유가 본고에서처럼 통시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32) 이러한 경우가 문제의 핵심이 됨은 현상의 기술에 의한 유형 분석을 통해 이해가 되나, 본고에서도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고유어이면서 'ㄱ' 받침을 가진 X만이 이러한 혼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33) 김희진(1995:239-240), 송창선(2008:70-74)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김희진은 세 국어사전 -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4), 『국어대사전』(이희승, 1982 · 1986 · 1995, 민중서림),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1992, 금성출판사) - 을 바탕으로 제시하였고, 송창선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두산동아)』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제시하면서 김희진이나 송창선의 용례들을 다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검색 방법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세히 찾기' 기능과 다양한 검색자를 활용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6)의 경우 모두 92개의 관련 단어를 검색해 내었다.

라. 반복어형

낙낙히	넉넉히	녹녹히	눅눅히
똑똑히	맥맥히	먹먹히	씩씩히
척척히	톡톡히	툭툭히	차곡차곡히

마. 기타

갈쭉히	걸쭉히	껄쭉히	갸륵히1
갸륵히[2]	거룩히	결곡히	고약히
공칙히	귀축축히	그악히	딱히1
딱히[2]	머쓱히	빠삭히	빼곡히
빼꼭히	서낙히	아늑히	으늑히
아뜩히	얄팍히	어둑히	어색히
여낙낙히	유착히	이슥히	익숙히
잘팍히	즉속히	질벅히	차곡히
착히	참척히	척척히	탐탁히
한가득히	협수룩히	홀쭉히	홀쭉히

바. 접미사 '-이'와 혼란스러운 경우

가득가득히-가뜩가뜩이	가득히-가뜩히-가뜩이
그득그득히-그뜩그뜩이	그득히-그뜩히-그뜩이
두리넓적히-둥글넓적이	든직히-듬직이
먈쑥히-말쑥이[34]	하야말쑥히-허여멀쑥히-희멀쑥이

(6)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X가 고유어이고, 끝소리가 'ㄱ'인 경우에 접미사 '-히'와 결합한 용례를 검색하여 유형에 따라 분류[35]한 것이다. (6가-다)는 고

34) 김희진(1995:241-242)에서는 '먈쑥히'라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먈쑥이'만 나타난다. 이를 참고한다면, '먈쑥히'라는 형태는 실제로 나타난 지 불과 20여 년에 불과하다. 어떤 이유에서 '먈쑥이'가 '먈쑥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5) (6)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현상에 대해 정리한 단순한 기술에 불과하다. (6)의 분류가 고유어이면서 끝소리가 'ㄱ'인 X가 접미사 '-히'와 결합하는 이유를 음운론·형태론적인 면에서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를 시도한 이유는, 고유어이면서 끝소리가 'ㄱ'인 X의 경우가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와 결합형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

유어이면서 끝소리가 'ㄱ'인 경우에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X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용례들이다. (6라)는 접미사 '-히'가 붙는 어기가 반복되는 말들이다. 이러한 반복어 유형은 '가뜩가뜩이, 구덕구덕이, 뚝뚝이, 빡빡이, 빽빽이, 촉촉이, 팍팍이'처럼 접미사 '-이'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6라)의 용례들은 접미사 '-이'의 반복어 유형과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마)는 일정한 유형을 찾기 힘들지만 접미사 '-이'의 용례들과 혼란스럽지도 않은 경우다. (6바)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의태어가 느낌에 따라 형태를 다소 달리한 경우인데, 접미사 '-이', '-히'가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경우의 용례다. 따라서 이는 어느 한 쪽의 접미사로 정리하여 표기에 일관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Xㅎ-'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X가 고유어이고, X의 말음이 무성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6바)의 용례들은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가득가득이, 가득이, 가뜩이, 그득그득이, 그득이, 그뜩이, 두리넓적이, 든직이, 먈쑥이[36], 하야말쑥이, 허여멀쑥이'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6가-마)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송창선(2008)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접미사 '-이'를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37] 다만 '딱히1, 딱히2, 착히'처럼 어간이 1음절인 경

는지 설명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6) 특히, 어기가 'X말쑥/멀쑥/먈쑥-'인 경우, '먈쑥히, 하야말쑥히, 허여멀쑥히'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X말쑥이/멀쑥이'의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어기가 'X말쑥/멀쑥/먈쑥-'인 경우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것으로 바꾸면 일관성을 보일 수도 있다.

37) 송창선(2008:78)에서는 (6라)와 같은 경우를 첩어로 보아 접미사 '-이'를 붙이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 제20항이나 제51항 <해설보기>의 규칙성에서 제시하는 첩어는 그 첩어가 명사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6라)의 경우와 다르다고 본다. (6라)의 첩어는 모두 '-하다'가 붙는 어간의 일부인 어근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한 송창선의 주장을

우는 예외로 두었다. 송창선에서는 'Xㅎ-'의 X가 'ㄱ'을 끝소리로 가질 때, X가 고유어이면 접미사 '-이'를 붙이고, X가 한자어이면 접미사 '-히'를 붙이는 것으로 통일하자고 하였다. X가 한자어인 경우에 접미사 '-히'를 붙이는 것은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X가 고유어인 경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도 (6바)처럼 혼란스러운 경우는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접미사 '-이'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6라)의 반복어형도 접미사 '-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송창선(2008: 78)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첩어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유형이 접미사 '-이'형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6마)의 경우는 각주 37)에 덧붙인 것처럼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접미사 '-이'의 형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6마)는 뚜렷한 유형을 보이지도 않으므로 접미사가 '-이'든지, '-히'든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38]

받아들일 경우, 제51항의 용례 중에서 '쓸쓸히, 꼼꼼히, 답답히, 섭섭히' 등도 모두 '쓸쓸이, 꼼꼼이, 답답이, 섭섭이'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X가 한자어인 '급급히, 당당히'는 그대로 표기해야 하므로 혼란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6마)의 경우도 송창선(2008:78-79)은 접미사 '-이'를 붙이는 것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였다. (6마)에 접미사 '-히'를 붙일 경우 예외가 많아지므로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고, 또한 접미사 '-이'를 붙일 경우에 고유어이면서 'ㄱ' 끝소리를 가진 X를 모두 일괄적으로 '-이'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다소 유보적이다. 물론 (6마)에서 접미사가 '-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보낸다. 하지만 이를 임의로 모두 '-이'로 바꾸자는 것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접미사 '-히'인 경우와 뚜렷이 구별되는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8) 만약 (6마)의 경우를 굳이 접미사 '-이'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따로 제시하면 될 것이다. (6마)의 경우, 주관적이기는 하나, 발음을 고려할 때 접미사 '-이'가 어색한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임

하지만 (6가-다)의 'X숙숙히/속속히, X죽죽히/족족히, X아득히/어득히'처럼 일정한 유형[39]이 나타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X숙숙히/속속히, X죽죽히/족족히'가 언제부터 쓰인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X숙숙히/속속히'는 개화기의 자료에서도 '속속(速速)히, 숙숙(叔叔)히'는 용례가 보였으나 'X숙숙히/속속히'의 용례를 찾을[40] 수 없었다.[41] 하지만 'X죽죽히/족족히'의 경우에는 개화기의 자료에서 용례를 찾은 바가 있으나 (7)의 경우뿐이었다.

(7) 가. 검으죽죽ᄒᆞ다, 감푸루죽죽ᄒᆞ다, 시푸루죽죽ᄒᆞ다, 파르죽죽ᄒᆞ다, 포로족족ᄒᆞ다<한영자전(1897)>
나. 숨십이 넘으락 말락ᄒᆞ고 얼골은 새파루죽죽ᄒᆞ고<목단화90>
다. 부인은 파르족족ᄒᆞᆫ 얼골이 더욱 시팔아케되야<목단화651>
라. 이마ᄂᆞᆫ슉붓고, 얼골빗은, 파르족족ᄒᆞ고<귀의성304>

반면, 'X아득히/어득히'의 경우는 'X숙숙히/속속히, X죽죽히/족족히'에 비해 그 용례가 중세국어에까지 분명하게 나타났다.[42]

의로 접미사 '-이'로 바꾼다는 것에는 역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39) 이러한 유형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운론적으로나 형태론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X숙숙히/속속히, X죽죽히/족족히, X아득히/어득히'와 같은 유형들을 'X숙숙이/속속이, X죽죽이/족족이, X아득이/어득이'로 바꾼다고 해도 의미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문제는 없다. 다만, 비슷한 환경인 접미사 '-히'와 구별되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싶은 것이다.

40) 개화기 자료에 대한 검색 프로그램은 'UNICONC'를 이용하였다.

41) 김희진(1995)에서도 'X숙숙/속속-'은 용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보아 'X숙숙히/속속히'는 이후에 나타난 신조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X아득히/어득히'의 경우는 통시적으로 다양한 용례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숫자는 빈도를 나타낸다.)

(8) 가. 障이 손지 만혼 다ᄉᆞ로 道果ㅣ 아ᄃᆞ기 머니<月釋14:56b>
나. 無明의 아ᄃᆞ히 ᄀᆞ료미 기리 다아 나몬 것 업서<月釋12:35b>
다. 至極ᄒᆞᆫ 精誠ㅣ 읏드믄 고ᄃᆞᆯ 甚히 아ᄃᆞ기 모로놋다<杜重25:13a>
라. 다봇 門을 다도라 蕭蕭히 녯 ᄀᆞ이 서늘ᄒᆞ니 아ᄃᆞ히 ᄀᆞᇫ 구루미 ᄂᆞᄌᆞᆨᄒᆞ도다<杜重13:39b>
마. ᄆᆞᅀᆞᆷ을 아득히 잡아 ᄆᆞᅀᆞᆷ내 改過ᄒᆞ기ᄅᆞᆯ 싱각지 아니ᄒᆞᄂᆞ뇨<老乞重下46b>
바. 처음으로 ᄠᅴ디고 ᄃᆞᆯ빗치 미ᄒᆞ도다 ᄲᅡ디여 아ᄃᆞ이 싱각ᄒᆞ니<太平03b>
사. 칙을 펴면 무ᄉᆞᆷ 말인지 아득히 모로며<易言2:35b>
아. 고국에돌아갈긔약이 아득히 뎡ᄒᆞᆫ날이 업스니<옥호기연26>
자. 빗탈길에 발붓치기가 어렵고 그아러는 ᄭᅳᆷ아아득ᄒᆞ야 쳔길만길이나 되ᄂᆞᆫ디<비행선12>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X아득히/어득히'가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통시적 흐름을 보이고 있거나, 'X죽죽히/족족히'는 20세기 이후에, 'X숙숙히/속속히'가 1995년 이후에 나타난 신조어이고 여기에 접미사 '-이'보다 생산성이 높았던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라고 가정할 경우, 이를 임의로 접미사 '-이'로 바꾼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6가-다)의 유형을 고유어이면서 'ㄱ'을 끝소리로 가진 X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아ᄃᆞᆨᄒᆞ-	◉	◉	◉	○		
아득ᄒᆞ-		○	○	○	◉	◉
아ᄃᆞ기	8		3			
아ᄃᆞᆨ이					1	
아ᄃᆞᆨ히	10		2			
아득히				1	6	8

'아ᄃᆞᆨᄒᆞ-'에서 '아득ᄒᆞ-'로의 교체도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라 접미사 '-이', '-히'가 결합한 부사형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접미사 '-이', '-히'가 공존하다가 18세기부터는 접미사 '-히'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접미사 '-히'의 생산성이 '-이'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가 접미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로 일원화할 수도 있으나, 이 유형을 고유어이면서 'ㄱ' 끝소리를 가진 X가 접미사와 결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글 맞춤법 제25항과 제51항의 수정 제시

이제까지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에 대해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글 맞춤법을 다시 살펴보자. 먼저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대해 논의해 보자. 앞서 각주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 제19항, 제20항, 제23항, 제25항은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접미사 '-이'나 '-히'가 결합된 말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지,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들에 관해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본고에서는 제25항의 용례와 해설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말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제25-1,2항의 적용 순서를 해설에서 덧붙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현재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5-2항의 용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9)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한글 맞춤법 제25항을 수정 제시한 것이다.

(9) 한글 맞춤법 제25항 수정 제시[43]

---

43) 김형배(2004:143-145)에서도 한글 맞춤법 제25항 수정 제시가 있었다. 그는 한글 맞춤법 제19항, 제20항, 제25항, 제51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제시하였는데, 어근 말음이 'ㅅ'인 경우와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간 뒤에는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붙는다는 전제로 정리하여 여전히 어근 말음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는 경우

오뚝이	해죽이	깨끗이
생긋이	어렴풋이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나 부사에 ‘-이’가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해설보기〕에 수정하거나 첨가할 내용

1. 현행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딸린 <해설보기>의 내용을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오뚝하다, 생긋하다, 급(急)하다, 꾸준하다, 도저(到底)하다’처럼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이 파생되는 어근 형태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다’가 탈락하고 어근 형태소만 남은 형태로 간주한다.”라고 수정한다.
2. 또한 “제25-1항과 제25-2항, [붙임]은 일정한 적용 순서가 있다. ‘-하다’가 붙는 어근의 경우에 어간의 일부인 어근과 부사의 형태가 동일하여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적 파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사가 어간과 결합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우선 해석한다.”라는 내용을 첨가한다.

다음으로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살펴보자. 현행 한글 맞춤법 제51항은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선택을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으면서, <해설보기>에서 이에 대한 표기의 규칙성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제51항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51-3항 ‘-이’, ‘-히’로 모두 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때, 혼란

이 ‘ㄱ’인 경우는 다루지 않고 있어서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유어이면서 'ㄱ'으로 끝나는 X가 접미사 '-히'와 결합하는 경우[44]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통시적 과정에서 접미사 '-히'와 결합한 경우가 일정한 유형을 보이거나 접미사 '-히'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신조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히'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 제51항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성은 일정한 적용 순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X의 형태 자질과 적용 순서에 따라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구별을 보이는 수정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한글 맞춤법 제51항 수정 제시[45]

제51항 어간이나 어근에 '-이'나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는 다음의 적용 순서에 따라 '이'와 '히'를 구별하여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의 경우에 어근이 한자어이면 '히'로 적고, 고유어이면 '이'로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한자어 어근

극히 급히 속히 특히

---

44) 이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안(국어 연구소안)』(1987)의 부록으로 실린 해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ㄱ' 끝소리를 가진 말에선 문제가 있다. 현재 사전을 보면 '하다'가 붙는 말로 'ㄱ' 끝소리를 가진 용언에서 파생한 부사에 '이'로 표기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그뜩이, 그윽이, 깊숙이, 나직이, 납작이'들이 그러하다. 이들 말은 '히' 또는 '이' 두 가지로 발음된다면, '히'로 적었을 것이다. 현행 맞춤법 규정에선 '이', '히' 두 가지로 나는 경우에는 '-하다'가 붙는 말은 '히'로 적기로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극히, 특히'(제25항)와 '밝히, 작히'(제19항)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러므로 'ㄱ' 끝소리의 경우만은 표준어 사정이 끝나야 확실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표준어 사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5) (10)에 제시한 용례는 본고의 논의를 반영하여 보인 것일 뿐, 반드시 이 용례여야 함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굵은 글씨로 처리된 용례는 현행 한글 맞춤법의 '이', '히' 표기와 상이한 말을 표시한 것이다.

엄격히 정확히 간편히 공평히
과감히 급급히 능히 솔직히

2) '-하다'가 붙는 고유어 어근[46]

그윽이 깊숙이 가득이 두리넓적이
나직이 든직이 듬뿍이 먈쑥이
빼곡이 빼꼭이 어수룩이 해죽이
답답이 섭섭이 기웃이 나긋나긋이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지긋이

[붙임1] '-하다'가 붙는 고유어 어근이더라도 끝소리가 유성음인 경우에는 '-히'로 적는다.

고요히 꼼꼼히 나른히 가만히
쓸쓸히 조용히

[붙임2] 무성음으로 끝나는 고유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히'로 적는다.

가무숙숙히 볼그족족히 가마아득히 어득히
익히 작히 밝히 딱히

2.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나 어간의 경우는 '이'로 적는다.

1) 첩어 또는 준첩어로 된 명사 뒤

간간이 골골샅샅이 곳곳이 나날이
땀땀이 몫몫이 번번이 샅샅이
알알이 앞앞이 줄줄이 철철이

다만,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더라도 이미 굳어진 형태는 그대로 쓴다.

열심히

2) 부사 뒤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3)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47]

---

46) (10)의 1-2)에는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유어이면서 'ㄱ' 받침으로 끝나는 어근의 경우를 보였다. 이 경우를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한글 맞춤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기존의 'ㅅ'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대로 옮겼다. 아울러 'ㅂ' 받침의 경우도 기존에 '히'로 표기되었던 것을 '이'로 바꾸어 담았다.

가벼이	괴로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외로이	-스러이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헛되이

〔해설보기〕에 수정하거나 첨가할 내용

1. 1-2)와 관련하여 ''-하다'가 붙으면서 무성음으로 끝나는 고유어 어근의 경우에 무성음은 주로 'ㄱ, ㅂ, ㅅ'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2. 1-[붙임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함은, 'X숙숙/속속-, X죽죽/족족-, X아득/어득-'형이나 어근이 줄어든 형태,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사적 기능이 약한 단어 등을 가리킨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3. 2-'다만'과 관련하여 ''열심히'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열심하다'가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형태이므로 '열심히'를 그대로 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10)에서 제시한 한글 맞춤법 제51항의 수정 제시는 1984년 학술원안에서 제시한 <맞춤법 개정안> 이전의 입장을 수정 보완하여 현행 한글 맞춤법의 발음에 따른 구별의 입장도 담아내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한글 맞춤법의 발음에 따라 '-이', '-히'를 구별하려던 입장의 한계인 '-이', '-히'로 모두 나는 것을 'Xㅎ-'에서 X의 형태 자질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제시한 것이다.[48]

---

47) 현행 한글 맞춤법 제51항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의 규칙성에서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와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를 합하여 하나의 세부 항목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는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라는 의미가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를 함의할 수 있다고 보아 하나로 합하였다.

48) 분명히 본고의 제시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한 예가 '딱히'의 처리이다. '딱히'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부항목의 마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지금의 혼동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데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의 조항보다 더 복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글 맞춤법 제51항은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표기에 있어서 현상에 대한 기술이지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기술은 유형적인 것이므로 항상 필연적이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접미사 ‘-이’, ‘-히’의 표기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고가 이에 대한 규칙을 밝힌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다만 이러한 혼란을 다소 줄여보고자 한 시도의 일부일 뿐이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는 어기는 어근인가, 어간인가 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산적인 파생방법이 일반적으로 어간에 접사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가 결합하는 어기는 우선적으로 어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2장에서는 어기가 ‘X하-’인 경우, X가 부사인 경우와 ‘X하-’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X하-’ 어간의 일부인 어근으로 우선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우선순위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 표기의 규칙성에 있어서 일종의 적용 순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제에 따라 4장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25항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잡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으나, 제51항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의 규칙성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는 X의 형태 자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984년의 학술원안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 제51항은 발음에 따라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의 표기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발화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고, '이', '히'로 모두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설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의 규칙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됨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보다 명확하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X의 형태 자질을 구분하여 공시적인 입장에서 이를 적용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X가 고유어이면서 'ㄱ'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였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에 대한 현행 한글 맞춤법의 입장과 전통적인 맞춤법에서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제51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논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지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명확하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구본관, 「중세국어 'X ᄒ-+-이' 부사 형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pp. 105-133.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집』, 2002.

국어연구소, 『한글 맞춤법안(국어연구소안)』, 1987.

_____, 『한글 맞춤법 해설』, 1988.

金希珍,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에 관하여 - 특히 'ㄱ' 받침 아래에서 -」, 『국어교육』 87, 한국어교육학회, 1995, pp. 229-244.

김성규,「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94.
김종록,「중세국어 부사형성 접사 '-이/히, -오/우'에 관한 연구」,『문학과 언어』11, 文學과 言語硏究會, 1990, pp. 1-25.
김형배,「파생 부사의 원형 밝히기와 접미사 '-이, -히'의 표기 문제 - '한글 맞춤법' 조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말연구』15, 한말연구학회, 2004, pp. 138-145.
김희숙,「副詞化素 '-이/-히'에 대하여」,『논문집』13, 청주대학교, 1980, pp. 9-20.
박석문,「중세국어 부사 형성 방법과 그 제약에 대하여」,『반교어문연구』3, 반교어문학회, 1991, pp. 71-74.
成煥甲,「副詞化接尾辭 '-이/히' 論攷」,『국어국문학』65·66, 국어국문학회, 1974, pp. 97-110.
송창선,「현행 한글 맞춤법의 몇 가지 문제점」,『어문학』100, 한국어문학회, 2008, pp. 70-84.
유필재,「후기중세국어 부사파생접미사 '-이'의 형태음운론」,『국어학』49, 국어학회, 2007, pp. 3-31.
이숭녕,『중세국어문법(개정증보판)』, 을유문화사, 1981, pp. 123- 124.
이현희,「중세국어 용언어간말 '-ᄒᆞ-'의 성격에 대하여」,『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5, pp. 367-379.
이희승·안병희,『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2006, pp. 140-141.
정민영,「개화기 국어의 파생접미사 '-이/-히'에 대하여」,『개신어문연구』14, 개신어문학회, 1997, pp. 143-165.
최남희,『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1996.
허 웅,『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

Several Problems Related to Adverbial Derivational Suffix '-i', '-hi'

- Focus on the 25th, 51th Clause of the Hangul Orthography -

Park, Jun-Beom

The article will rais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cription of a adverbial derivational suffix in the current the Hangul orthography and will present revised and supplementary one based on this. First of all, the article proved a base combined with a adverbial derivational suffix is whether a root or a stem and presented the norm of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morphological feature of X in 'Xᄒᆞ(hʌ)-' to present more clear alternatives about the problem of a confusing adverbial derivational suffix matter.

In chapter 2, because, in productive derivation, a base combined with a suffix is general, the author pointed out that several examples in the 25th clause of the Hangul orthography have a problem and modified this in chapter 4.

Also in chapter 3, the article divided a morphological feature of X into a word written Chinese characters and a native word according to a diachronic viewpoint and, in turn, divided a native word into the case ending in a voiceless sound into a voiced one. According to this, the author presented the transcription criterion of '-ᄋᆡ(i)' and '-ᄒᆡ(hi)'. And based on this, the author presented the revised and supplementary one of the 25th clause of the Hangul orthography in chapter 4.

Key-words: suffix '-ᄋᆡ(i)', suffix '-ᄒᆡ(hi)', adverbial derivational suffix, the transcription of suffix '-ᄋᆡ(i)' and '-ᄒᆡ(hi)'

박준범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810-2110
전자우편: koreantea@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